

# 아이 낳으면 최대 5억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국토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안정방안'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출 대상)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등 내달 29일부터 신청 중기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내년말까지 연장 특례보증자리론 내달 종료...새 정책모기지 판매키로

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이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

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특례보증자리론 판매가 오는 1월 29일을 끝으로 중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올해 1월에 1년 한시로 시작했던 특례보증자리론 판매를 예정대로 내달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기준 보증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특례보증자리론을 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 상품 출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애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증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내년 1월 말부터 다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책모기지 요건과 관련,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지원, 주택금융공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전의 기존 보증자리론과 유사한 요건으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특례보증자리론 판매 중단으로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추가 반등 없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의 일시적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적체 지역은 내년 상반기, 경기-인천 지역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가격 하락이 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수요 위축, 정책 기대 심리 축소로 인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증자리론 판매 종료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기존 정책 종료와 더불어 후속 정책 기대감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역 수출기업 10곳 중 3곳 "내년, 올해보다 악화"

## 광주상의 116곳 조사

광주와 전남기업 70%가 내년도 경영전망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수출기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도 체감 경영전망에 대해 35.3%(41개사)가 '금년도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32.8%(38개사)였다. '호전될 것이다'는 응답은 31.9%(37개사)에 불과했다.

지역 수출기업들의 올해 체감 경영실적은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61.2%(71개)로 압도적 이었고,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29.3%(34개), '전년보다 호전됐다'는 9.5%였다.

수출실적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기업이 48.3%(56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과 비슷하다'(38.8%·45개), '증가했다'(12.9%·15개) 순이었다.

## 35.3% "올해와 비슷"...48.3% "올 수출실적, 전년보다 감소"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답한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평균 2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전망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이 38.8%(45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고 응답한 기업도 26.7%(31개)나 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34.5%(40개)였다.

지역 기업들은 올해 주요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 '글로벌 경기침체'(51.7%·60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금리 지속'(20.7%·24개), '유가·환율 상승'(19.0%·22개), '미·중 갈등'(7.8%·9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5.5%·7개), 대우위니아 사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한 기타(3.4%·4개), 등을 꼽았다.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원자재가 상승'(51.7%·60개)이었다. 이외에 '신규 판로개척 애로'(18.1%·21개), '대출금리 부담'(15.5%·18개), '물류비 상승'(10.3%·12개), '인건비 상승'(10.3%·12개), '통관 애로'(4.3%·5개), '판매 대금 회수 지연'(4.3%·5개) 등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 이밖에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60.3%)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수출기업들은 대내외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경영비용까지 증가하면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업들의 수출 및 경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및 신시장 개척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제도 마련 및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NH농협 광주본부 교육격차 해소 2억 기탁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광주시 관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육성을 위한 기탁금 2억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전달돼, 장학금 조성·관리, 저소득 자녀 지원(학교 급식비 포함)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탈북가정 자녀 지원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농협이 지역사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후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계속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은 광주·전남본부, 중기·자영업자 설 자금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 특별자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8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비례 배분)를 저리(연 2.00%)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다만 부동산업·유형업·금융관련업·전문서비스업 등 대출제한 업종이나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우량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은 사무실 또는 가정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SOHO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삼성전자 '8만전자' 성큼...6거래일째 상승

### 7만8000원 마감

삼성전자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만전자'에 다가갔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83% 오른 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증가는 52주 신고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올랐다. 또 지난 20일부터 5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증가는 지난해 1월 12일(당시 종가 7만 8900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일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지속, 이 기간 순매수 규모가 8600억원에 이른다.

기관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순매수세를 지속하다가 이날은 '팔자'로 전환했고, 개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지난밤 뉴욕증시에서 인텔(5.2%), 마이크로소프트(0.7%), AMD(2.7%)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증권가가 내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와 입학 회복 기대감 등에 근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을 내년의 주도주로 꼽아온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3.50(+10.91)
▲ 코스닥	859.79(+11.45)
↓ 금리(국고채 3년)	3.220(-0.001)
↓ 환율(USD)	1294.20(-0.30)



'더 뉴 GLA'

'더 뉴 GLB'

## 벤츠, 부분 변경 콤팩트카 3종 만나세요

### 더 뉴 CLA·더 뉴 GLA·더 뉴 GLB "젊은 감각에 고급스러움 더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7일 올해 마지막 신차로 부분 변경 콤팩트카 모델 3종을 선보이고 지난 26일부터 공식 판매에 나섰다

공개된 콤팩트카 라인업은 쿠페 모델인 2세대 부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A'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2세대 부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첫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이다.

이들 콤팩트카는 ▲새로워진 전면 디자인, ▲새로운 실내 트림 옵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탑재된 가솔린 엔진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한층 디지털화된 사용자 경험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새롭게 출시됐다는 게 벤츠의 설명이다.

박양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기획 전략 상무는 "지난 더 뉴 A-클래스에 이어 이번 더 뉴 CLA, 더 뉴 GLA, 더 뉴 GLB출시를 통해 부분변경 콤팩트카 모델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다"라며, "젊은 감각과 고급스러움이 만나 특별한 매력이 강화된 만큼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큰 사랑

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더 뉴 CLA 250 4MATIC과 더 뉴 GLA 250 4MATIC, 더 뉴 GLB 200d가 이달 먼저 출시돼 고객 인도가 시작됐으며, 더 뉴 GLB 250 4MATIC과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도 추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